

김수철, 장은정,
안주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베트남전
귀국상자의 보존처리

09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베트남전 귀국상자의 보존처리

김수철^{1*}, 장은정¹, 안주영²

¹한국전통문화대학교,

²대한민국역사박물관



Conservation of Vietnam war Homecoming box in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Soo Chul Kim^{1*}, Eun Jeong Jang¹, Jooyoung Ahn²

¹The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²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Corresponding Author : oldforest@nuch.ac.kr

| 초록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베트남전 귀국상자는 전체적으로 열화가 진행되어 색이 바래고 이물질 고착, 균열, 부후 등 손상이 심하였다. 특히 하단부는 충해로 인한 손상이 심한 상태이며 일부 남아있는 받침목은 열화와 갈라짐이 심하여 불안정한 상태이다. 금속 띠를 둘러싼 흔적이 바닥과 측면 중앙 모서리에 있으며 부착되어 있는 금속 띠와 상자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탈락된 금속 띠 모두 부식이 심하다. 또한 상자를 덮고 있는 뚜껑의 우측 하단부에는 검은 색의 이물질이 고착되어 있다. 보존처리는 처리 전 조사를 마친 후 클리닝, 균열 메움, 바닥 보강, 금속띠 부착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주제어 : 근대문화재, 귀국상자, 목재, 열화, 보존처리

| ABSTRACT |

The Vietnam homecoming box that has been collected in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got severely damaged such as rot, attached foreign substance, fading, color, wood decay. In particular, the bottom of the box was unstable state that deteriorated by pests and the left strut was severely damaged by some deep cracks and pests. The metal bands were remained on the side and bottom of the box, and all the bands were seriously corroded. On the bottom-right of the lid, black foreign matter was adhered to the surface. In the process of conservation treatments, the cleaning, filling cracks, reinforcing the bottom of the box, attaching the metal bands were proceed in order after the investigation of the state.

Keywords : modern cultural properties, homecoming box, aging, wood, conservation treatment

1. 서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아름다운 공유>전에서 전시된 귀국상자는 베트남전 (1965-73)에 파병되었던 군인이 한국으

로 귀국할 당시, 소지품과 함께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담은 상자이다. 귀국상자는 베트남전과 해외 파병이라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가치 있는 자료이다. 특히 대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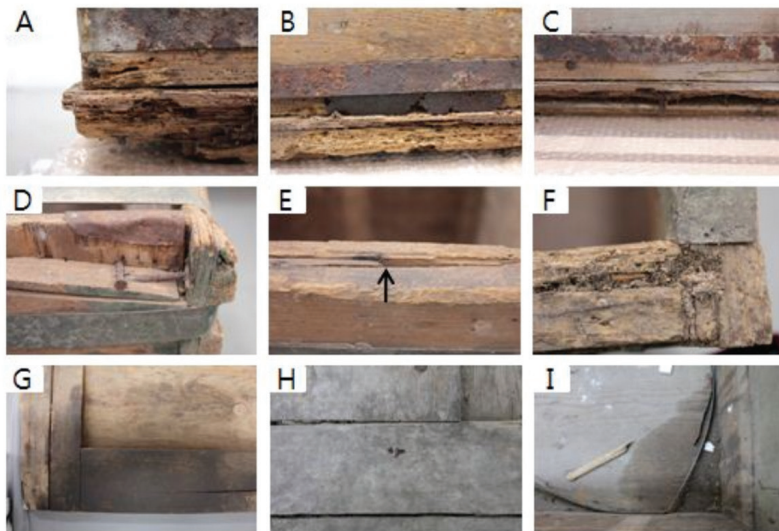


Fig.1. Before the conservation treatment.

(A,B,C:termite damage of bottom, D,E:crack of upper section, F:foreign substance of crack, G,H: contaminant of box top, I:inside the box and separated metal band)

국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국 상자의 우측면과 좌측면에는 받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주소가, 전면과후면에는 보내는 이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전면에는 당시의 선적허가서가 부착되어 있어 근대사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베트남전 귀국상자의 보존처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유사 유물의 보존처리 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2. 처리 전 상태 및 조사

2.1 처리 전 상태

귀국상자의 크기는 102×122×90cm로써 나무로 짜여진 상자를 못을 이용하여 결구하고 3cm 폭의 금속 띠를 둘러 고정시켰다. 나무는 전체적으로 열화되어 색이 바래고 부후, 이물질 고착, 균열 등 손상이 심하다. 특히 하단부는 충해로 인한 손상이 심한 상태이며 일부 남아있는 반침목은 열화와 갈라짐이 심해 불안정한 상태이다(Fig. 1). 바닥과 측면 중앙 모서리에 분리되어 있는 금속 띠를 들렀던 흔적이 있으며 부착되어 있는 금속 띠와 탈락된 금속 띠 모두 부식이 심하다. 상자를 덮고 있는 뚜껑의 우측 하단부에는 약 30×58.5cm 크기의 검은 색의 이물질이 고착되어 있다.

2.2. 수종분석

귀국상자는 테두리를 구성하는 목재와 면을 이루는 합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자의 테두리를 구성하고 있는 목재의 틈(Fig. 1 E)에서 시료를 소량 채취하였으며, 현미경(Nikon, JP/LV1000, Japan)을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침엽수재로 조재와 만재의 이행이 급하고 수직수지구를 횡단면(Fig. 2 A)에서 관찰할 수 있다. 접선단면(Fig. 2 B)의 방사조직은 단열방사조직과 수평수지구를 갖는 방추형방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단면(Fig. 2C)에서 방사조직은 방사가도관과 방사유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가도관벽의 유연벽공은 1열이다. 직교분야벽공은 소나무형으로 3~5개의 벽공이 존재한다. 방사가도관에서 거치상비후가 관찰되는 것은 외래산 소나무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래산 소나무는 리기다, 방크스, 테에다 소나무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해부학적 특징이 거의 비슷하여 식별하기 어렵다. 국산 소나무에서 나타나는 창상벽공이 나타나지 않고, 소나무형벽공이 관찰되어 외래산 소나무류로 식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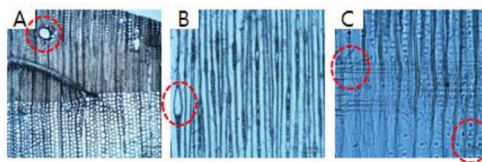


Fig. 2. Wood Identification of homecoming box [A:cross section (×40), B:tangential section (×100), C:radial section (×20)]

2.3. 성분분석

금속 띠의 성분을 p-XRF(Innov-X System,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연과 철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아연의 비율이 높다(Fig. 3). 이는 부식방지를 위해 아연으로 도금한 철을 금속 띠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3. Analysis results of p-XRF

3. 보존처리

처리 전 조사를 마친 후 클리닝(Fig. 4 A, B), 균열 메움(Fig. 4C), 바닥 보강(Fig. 4D), 금속 띠 부착(Fig. 4 E)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3.1. 클리닝

귀국상자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 띠 사이와 판자와 판자 사이에 존재하는 범벅과 먼지 등의 이물질(Fig. 1F)을 대나무 칼과 핀셋, 붓 등을 사용하여 건식 클리닝을 시행하였다.

이물질 제거를 완료한 후 부분적인 습식 클리닝을 시행하였다. 각 면의 고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류수 온습포를 사용하였다.

뚜껑 우측하단부의 검은색 오염물질(Fig. 1G)은 다른 면보다 고착된 정도가 심하였다. 이 때문에 수용성과 유기 용



Fig. 4. process of conservation treatment.

제 등을 대상으로 세척력 테스트를 시행한 후, 가장 적합한 유기 용제(Xylene)를 선택하였다. 사용 전 충분한 예비 테스트를 진행하여 유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습식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3.2. 균열 메움

귀국상자의 표면에는 충해로 인한 크고 작은 구멍들과 균열들이 존재하였다. 우측면 테두리 목재부의 벌어진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소나무 편을 성형하고 아교와 목분을 혼합하여 접합(Fig. 4C)하였다. 나머지 작은 손상 부위는 아교와 목분을 혼합하여 충진하였다. 완전히 건조된 충진 부위는 아크릴 물감(Liquitex®)을 사용하여 색맞춤을 실시하였다.

3.3 바닥 보강

충해 등의 손상이 심한 바닥면은 원래의 재료와 이질감이 없도록 아교와 목분을 혼합하여 충진하였다. 우측면 하단부와 후면 하단부의 경우가 가장 취약하였으므로 소나무 각재로 보강(Fig. 4D, Fig. 5F and Fig. 5H) 후 충진하였다. 바닥면의 받침대가 결실되어 불안정한 부분은 귀국상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동일한 소나무 각재를 사용하여 보강 및 충진처리(Fig. 5J) 하였다.

3.4 금속 띠 부착

분리되어 상자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금속 띠를 안정화 처리 후, 원 위치에 부착하였다. 분리된 띠 안쪽에는 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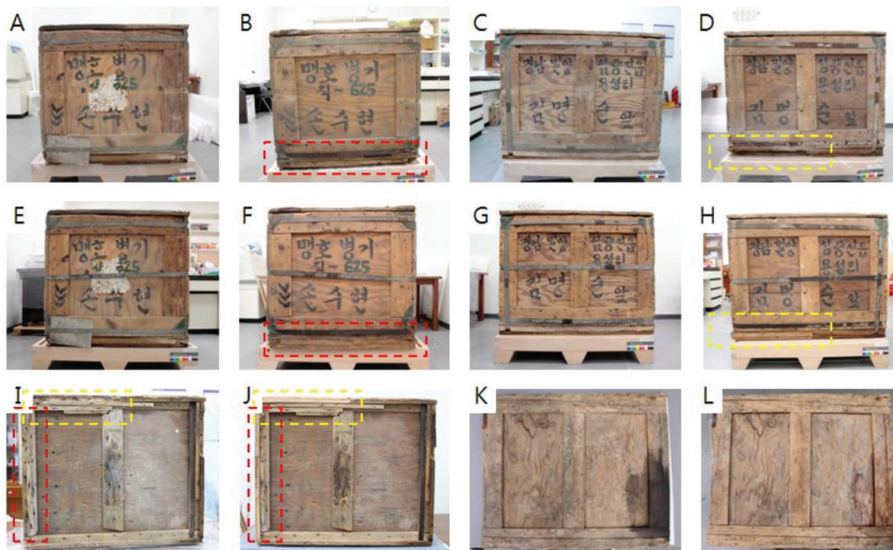


Fig. 5. before and after the conservation treatment of homecoming box.
(A, B, C, D, I, K : before the treatment, E, F, G, H, J, L: after the treatment)

의 재질보다 약한 동판을 접합하여 보강 (Fig. 4E)하고 동판 표면을 에폭시수지를 사용하여 색맞춤하였다.

4. 결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베트남전 귀국상자는 전면에 선적허가서가 부착되어 있고, 상자의 우측면과 좌측면에는 받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주소가, 전면과 후면에는 보내는 이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이 기록되어 있어 근대사적 가치가 높다. 귀국상자 전체적으로 이물질이 고착되어 있으며 금속부의 부식이 심하고 특히 하단부의 충해와 부후가 심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재료와 이질감이 덜한 목분과 아교를 사용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구조적으로 특히 불안정한 부분은 소나무 각재를 사용하여 보강처리하였다. 보존처리 후 활용이 중시되는 근대문화재의 특성상 불안정한 하단의 강화처리 뿐만 아니라 충해로 인해 결실된 부분을 복원하여 사용 당시의 모습과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였다.

귀국상자의 주재료는 합판과 목재이며, 테두리 목재의 수종분석을 시행한 결과 외래산 소나무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래산 소나무는 리기다, 방크스, 테에다 소나무 등이 있으며 그 중 리기다소나무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수종으로 국내 환경에서 성장하기 좋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 1959년부터 1999년까지 대규모 조림 조성에 대표적

인 수종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베트남전 귀국상자에 사용된 외래산 소나무의 원산지에 관해서는 단정짓기 어렵다. 하지만 기존 문화재의 구성과는 다르게 목재와 합판, 금속 띠, 못 등으로 상자가 제작되어 근현대 재료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등록문화재 제도를 바탕으로 근현대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건축물을 제외한 다른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근현대 유물의 보존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복합재질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처리 방안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이창복, 1993, 수목학, 향문사, p. 86
- 이강우, 1994, 한국산 목재의 구조, p. 19
- 성주창, 2000. 6, 도금기술 용어사전, 도서출판 노드미디어
- 산림청, 2000, 산림연보, 산림청
- 강흔모, 2008, 근대동산문화재 보호 · 관리, 전기의 세계 제57권 제9호, pp. 65-70